

#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 관련변인에 관한 분석\*

## An Ananlysis of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the Related Variables\*

인천대학교 생활자원관리학과  
교수 장영애

Major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Univ. of incheon  
Professor : Jang, Young Ae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other variables that are related to areas, children and the hom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3 elementary school children enrolled in grade 3 and their mothers.

Instruments included the inventory of home stimulation(HOME), the perceived competences scale for children.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were as follows : The degree of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differed according to areas(urban and rural), children's sex, birth order, mother's education, father's education, mother's employment satisfaction, income of the family, type of the family. And the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and the home environment stimulation were a positive correlation. Especially HOME and areas(urban and rural) were important variables that effects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s.

**주제어(Key Words):** 아동의 자기능력지각(children's perceived competence), 관련변인(related variables), 도시와 농촌(urban and rural areas)

\* 본 연구는 2000년도 인천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서론

인간은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해간다.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란 용어는 개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조건과 요인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환경변인중 가정에 관계되는 환경은 출생시부터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이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효과적으로 개념화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은 꾸준히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왔는데, Syracuse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가정환경 자극검사, 즉 HOME(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도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Caldwell & Bradley, 1979). HOME은 가정에서 제공되는 아동발달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환경자극을 측정하는데, HOME을 이용하여 가정환경 자극변인을 측정하고 이것과 아동의 성장발달과의 관계를 본 연구들은 HOME이 아동의 성장 발달과 깊은 관계를 가지는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HOME을 번안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적 수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HOME과 아동발달과의 관계를 규명한 바도 있는데(장영애, 1987, 1993, 1994, 1995), 이러한 연구들은 HOME이 우리 나라에서도 아동발달을 중요하게 설명하거나 예언해주는 가정환경 자극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한편 인간이 가지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일종의 자기가치 또는 자아개념의 형태로서 자신감, 자아존중감, 자기수용,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등의 용어들로 표현되기도 한다. 이와같은 자아의 문제가 심리학에서 제기된 것은 1890년 William James로부터 유래되었다. James가 자아(ego), 자기(self)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론적 체계를 시도함에 따라 여러 심리학자들은 자아개념 연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아동이 자신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는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아동의 자아지각을 평가하는 몇가지 자기보고식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Harter

(1982)가 개발한 지각된 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s scale for children)이다. Harter(1982)의 자기능력 지각척도는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는데 인지적 자아는 학업성취를 강조한 학교에서의 능력을 말하며, 사회적 자아는 또래와의 사회적 능력, 신체적 자아는 스포츠와 실외놀이에 중점을 둔 신체적 능력을, 그리고 일반적 자아는 일반적인 자아가치 능력을 측정한다.

한편 인간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지각하는가는 개인의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건전한 성격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며 특히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형성 발달해 간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최초의 경험의 장인 가정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며 특히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환경 경험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과 가정 및 부모에 관련되는 변인에 따라 부모나 주위 사람들의 태도, 양육방식, 아동에게 제공되는 구체적 환경이 달라지므로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가정 및 부모에게 관련된 여러 변인, 아동에게 관계되는 여러 변인들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데 기존의 몇몇 연구는 단편적인 한두가지의 변인들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만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제공되는 아동발달에 관계되는 구체적인 환경자극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드물고 이또한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은 여러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 아동발달에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도시의 아동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이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자기능력지각을 측정하는 도구의 문제로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9세경이면 뚜렷해지고(Mussen, Conger & Kagan, 1979), Harter의 자기능력 지각척도가 이 연령의 아동에게 사용가능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여러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초등학교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또한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으로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가정에 관련된 변인 즉,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취업만족도, 가정의 수입, 가족 형태 등의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보고,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환경자극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시와 농촌, 아동 및 가정에 관련된 여러변인들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관련된 이들 여러 변인의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비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같은 연구는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변인을 밝힐 수 있으므로 아동의 자아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해 준다는데 본연구의 의의와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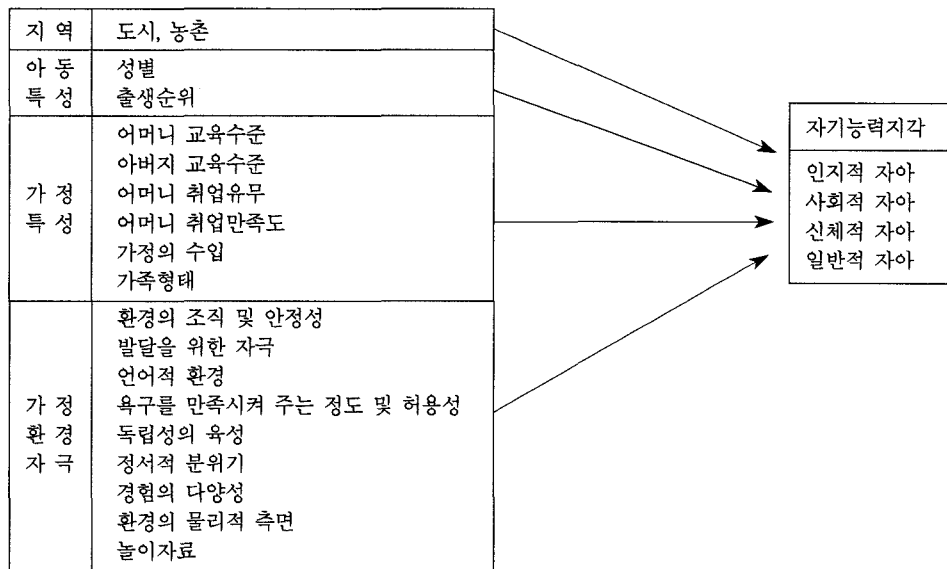
둘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아동관련변인(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셋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가정관련변인(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취업만족도, 가정의 수입, 가족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넷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에서 제공되는 환경자극은 어떤 관계를 갖는가?

다섯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이와같은 연구문제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고찰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관련된 연구를 지역, 아동에 관련된 여러 특성 변인과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와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지역, 아동 관련변인과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

먼저 도시와 농촌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을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조성연(1997)은 도시지역 아동이 농촌지역의 아동에 비하여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지니는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나타냄으로서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이의 영향을 받아 더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아동의 성별, 연령 등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 먼저 우희정과 이숙(1994)은 5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을 연구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전반적인 수준에서는 성차가 없었으나 하위요인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 인지적 요인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요인에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그리고 사회, 정서적 요인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Bandura(1977)와 Parsons, Ruble, Hodgers와 Small(1976)도 성차를 보고하고 있는데 지적활동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에 성차가 나타나 여아가 남아보다 덜 효능적으로 자기능력을 지각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Harter(1985)는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문적 능력, 사회적 능력, 신체적 능력과 행동적 능력, 전반적인 자아가치에서는 성차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만 운동적 능력에서만 성차가 나타나 남자 아동들이 운동적 능력에서 여자 아동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연령, 성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을 분석한 연구들이 있는데, 이진화와 전경숙

(1995)은 아동의 연령이 어릴수록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했으며, 남아가 여아보다 특히 신체적 영역과 운동적 영역에서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했고, 인기아가 배척아나 고립아보다 자기능력을 높이 지각했다고 한다.

### 2.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관련변인과의 관계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부모교육수준 등의 가정관련변인, 양육태도와 양육행동, 가정환경변인 등 다양한 변인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 부모교육수준, 월수입 등 가정에 관련된 변인과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본 윤현선(1983)은 사회 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어머니 자아개념이 높아지며 자녀도 높은 자아개념과 적극적인 행동을 나타냈다고 한다.

어머니 직업과 자아개념과의 관계를 연구한 Rapport(1970)는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일을 할 때 자녀의 성취감에 강한 자극을 주어 자아존중감 형성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손화희, 윤중희, 1990).

이외에도 부모의 교육수준, 가정의 월평균소득과 가족크기에 따른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이들 변인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이들은 일반적으로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크기가 클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을 보고하고 있다(김순영, 1987; 손화희와 윤중희, 1990; 오순환, 1991; 조선영, 1997).

다음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그리고 몇몇의 가정환경변인과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공인숙(1989)은 아동이 부모를 온정적이며 통제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인지적, 사회적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이 가장 높았고 전반적 자아가치에

대한 자기 지각도 높았다고 한다. Halpin, Halpin과 Whiddon(1980)은 통제에 관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중감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높은 자기 존중감은 부모의 따뜻한 양육태도, 원칙을 규정해 놓은 훈육태도, 성취에 대한 보상과 정적 상관이 있고, 보호, 외적차별, 성취에 대한 압력, 특권의 박탈, 감정적인 처벌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고 한다.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행동도 영향을 미쳤는데 Taub(1974)와 Tower(1981)는 부모의 양육행동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거부적, 통제적일 때 자녀는 열등의식에 쌓이고 소극적이 되며 사회적 부적응을 일으키게 되고, 아버지가 애정적, 자율적일 때 자녀는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긍정적 자아개념을 발달시킨다고 한다. 이미정(1988)도 아버지의 자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중감과의 관계에서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명확한 제한을 선정해주며 반응적이고 합리적으로 지도하여 보다 친밀한 양육행동을 할 때 아동의 자존중감이 격려된다고 한다. 특히 남아의 자존중감은 아버지가 양육행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여아의 자존중감은 아버지가 합리적으로 지도를 하는 정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연구한 손화희와 유준희(1990)는 어머니의 양육태도 중 애정-중요적태도, 수용-거부적태도, 독립심권장-의존심 조장태도는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상관이 있으며 자율-통제적태도는 유의미와 상관이 없음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족 환경 변인이며 그다음은 어머니의 애정-중요적태도, 수용-거부적태도로 나타났다고 한다.

한편, 이남기와 박정희(1995)는 아동이 지각한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에서 아동의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성차, 양육수준, 중요도 인식수준 모두 아동이 지각하는 유능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심리과정적 가정환경과 성차는 양육태도와 중요도 인식수준을 통해 간접영향을 미

친다고 했다.

우희정과 이숙(1994)은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 효능감간의 인과모형은 탐색한 결과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 즉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 애정적 부모관계, 부모자녀 관계 만족도와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를 연구한 조성연(1997)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중 애정과 성취는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가정에 제공되는 환경자극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을 분석한 연구도 있는데 이주리와 유안진(1991)은 초등학교 4학년과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정환경변수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은 부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으며, 가정환경의 하위변인과 부모교육수준 중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아동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어주경(1999)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제적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어머니는 우울하게 되고 부부간 갈등을 일으켜 자녀에게 거부, 제재적인 행동과 허용, 방임적인 행동을 많이 하였는데 이중 허용, 방임적인 행동은 아동의 자존감을 낮추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의 자존감은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보다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하는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자기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은 가정에 관련된 다양한 변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도시와 농촌, 아동에 관련되는 변인, 가정에 관련되는 변인, 가정에서 제공되는 구체적인 환경자극과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었고, 더구나 이들 변인의 영향력을 비교분석한 연구는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8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도시는 서울과 인천의 초등학교 2곳에서 표집되었으며 농촌은 경기도 양평과 김포지역의 초등학교 2곳에서 표집되었다. 연구대상 아동과 그 가정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 아동 및 가정의 일반적 특성 (N=183)

변인	항목	N(%)
지역	도시	93 (50.8)
	농촌	90 (49.2)
아동성별	남	92 (50.3)
	여	91 (49.7)
출생순위	독자	31 (16.9)
	첫째	68 (37.2)
	둘째	63 (34.4)
	기타	21 (11.5)
어머니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59 (32.2)
	고졸	94 (51.4)
	중졸 이하	30 (16.4)
아버지 교육수준	전문대졸 이상	97 (53.0)
	고졸	64 (35.0)
	중졸 이하	12 (12.0)
어머니 취업유무	유	34 (36.6)
	무	59 (63.4)
어머니 취업만족도	만족	10 (29.4)
	보통	13 (38.2)
	불만족	11 (32.4)
가정의 월수입	250만 이상	45 (24.6)
	150만~250만 미만	87 (47.5)
	150만 미만	51 (27.9)
가족형태	대가족	82 (44.8)
	핵가족	101 (55.2)

#### 2. 연구도구

본 연구의 도구는 가정환경 자극검사, 자기능력 지각척도,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관한 질문지로 구성된다.

#### 1)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

이검사는 장영애(1984)에 의해 변안되어 타당화 연구를 거친 검사로서 9개의 하위변인으로 이루어지고 총 13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영애(1984)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97개의 문항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것을 기초로 장영애(1987)가 문항수가 적은 하위 변인의 문항을 보완하여 사용한 104개의 문항중 일부의 문항을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의 신뢰도는  $\alpha = .78$ 로 나타났다. 본 검사는 부모에게 질문지의 형태로 배부되어 '예', '아니오'로 측정되었고 '예'인 경우 1점의 점수가 주어졌다. HOME의 하위변인 및 하위변인별 문항수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용 HOME의 하위변인 및 문항수

하위 변인	문항수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6
발달을 위한 자극	12
언어적 환경	9
육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8
독립성의 육성	10
정서적 분위기	13
경험의 다양성	16
환경의 물리적 측면	13
놀이 자료	17
전 체	104

#### 2) 자기능력 지각척도

본 연구에서는 Harter(1982)의 자기능력 지각 척도(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를 전경숙(1992)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자기능력 지각척도는 아동의 지각된 능력과 일반적인 자기가 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자기보고식 척도로서 조사내용은 아동의 4가지 자아영역, 즉 인지능력의 지각, 사회적 능력의 지각, 신체적 능력의 지각, 그리고 일반적 자아지각이다. 각 항목은 자기능력 지각정도에 따라 1~4점의 점수가 주어진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alpha = .72$ 로 나타났다.

3) 아동 및 가정 관련 변인에 관한 질문지

이 질문지에는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취업 만족도, 가정의 월수입, 가족형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변인에 따른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환경자극과의 관계분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 분석으로 나누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2000년 7월과 9월에 서울과 경기도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4개교 6학급에서 수집되었다. 가정환경 자극검사와 아동 및 가정관련 변인에 관한 질문지는 교사를 통해 학생의 부모에게 배부된 다음 교사의 협조를 구해 회수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자기능력 지각 검사는 각 학급별로 아동에게 배부되어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주요 변인의 빈도와 백분율이 산출되었다. 그리고 지역, 아동 및 각 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정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의 점수를 t검증과 일원변량분석, Scheffe' 검증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환경 자극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인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상의 통계분석은 Spss for Windows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의 결과를 도시와 농촌, 아동 및 가정관련

1. 도시와 농촌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차이 비교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는 인지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도시의 아동이 인지적 자아와 일반적 자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농촌의 아동은 신체적 자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도시의 아동은 농촌의 아동보다 자신을 인지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고 일반적인 자아 능력도 더 높게 지각한 반면, 농촌의 아동은 신체적인 운동 능력에서 자신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자아능력 총점에서는 도시의 아동이 농촌의 아동보다 더 높은 지각 점수를 나타냈다.

2. 아동 관련 변인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차이 비교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아동에 관계되는 특성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의 성별, 출생순위에 따른 자기능력 지각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신체적자아와 일반적자아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자아, 일반적자

<표 3> 도시와 농촌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차이

(N=183)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	
	M	t	M	t	M	t	M	t	M	t
도시	17.82		17.09		16.92		17.93		69.76	
농촌	15.98	8.76**	17.11	1.32	17.54	4.31*	16.17	5.39*	66.80	4.27*

\*p<.05 \*\*p<.01

〈표 4〉 아동관련 변인에 따른 자기능력 지각차이

(N=183)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		
		M	t/F	S	M	t/F	S	M	t/F	S	M	t/F	S	M	t/F	S
성별	남	16.94			17.07			18.36			17.75			70.12		
	여	16.86	1.42		17.13	1.39		16.10	9.26**		16.35	4.63*		66.44	4.52*	
출생 순위	독자	16.92			17.37		B	17.24			17.06			68.59		
	첫째	16.88	.63		15.83	9.63**	C	17.28	1.01		17.09	.74		67.08	2.31	
	둘째	16.90			18.10		A	17.17			17.00			69.17		

\*p&lt;.05 \*\*p&lt;.01

아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내 남아들이 여아보다 신체적인 운동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고 일반적인 자아지각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자아총점에서도 남아가 여아보다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출생 순위에 따라서는 사회적 자아에서만 유의한 차를 나타내 출생순위가 둘째인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은 독자, 첫째아동 순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아동이 자신의 사회적 능력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첫째 아동은 가장 낮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관련 변인인 아동의 성별과 출생순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 하위변인을 달랐지만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3.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기능력 지각차이 비교

가정에 관계되는 여러 특성 변인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유무, 어머니 취업만족도, 월수입, 가족형태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인지적 자아, 일반적 자아, 그리고 자아 총점에서 유의한 차를 나타냈다. 즉 인지적 자아는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의 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은 고졸, 중졸이하 어머니의 아동순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 자아는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의 아동이 고졸과 중졸이하 어머니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한편 자아총점은 전문대졸 이상 어머니의 아동이 중졸이하 어머니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총점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인지적 자아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아동이 중졸이하 아버지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적 자아능력을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 취업만족도에 따라서는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다. 즉 인지적 자아에서는 어머니의 취업만족도가 높을수록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사회적 자아는 취업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이 보통이나 낮은 어머니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자아총점에서는 취업만족도가 높은 어머니의 아동이 낮은 어머니의 아동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 어머니의 취업 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자기능력을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신체적 자아 능력 지각에서만 유의한 차가 나타나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적은 가정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총점에서 유의한 차가 나타났는데 모두 대가족 가정의 아동이 핵가족 가정의 아동보



<표 5> 가정관련 변인에 따른 자기능력 지각차이

(N=183)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		
		M	t/F	S	M	t/F	S	M	t/F	S	M	t/F	S	M	t/F	S
어머니 교육 수준	전문대졸 이상	18.31		A	17.08			17.24			18.81		A	71.44		A
	고졸	16.94	10.94**	B	17.10	0.72		17.22	0.31		16.18	4.92*	B	67.44	6.21*	AB
	중졸이하	15.45		C	17.11			17.23			16.16		B	65.95		B
아버지 교육 수준	전문대졸이상	17.92		A	17.12			17.23			17.03			69.30		
	고졸	16.96	4.86*	AB	16.99			17.24	0.28		17.05	0.92		68.24	2.36	
	중졸이하	15.82		B	17.19	1.93		17.22			17.07			67.30		
어머니 취업 유무	유	16.91			16.88			17.25			17.09			68.13		
	무	16.89	0.72		17.32	1.21		17.21	0.56		17.01	0.86		68.43	1.36	
어머니 취업 만족도	높음	18.96		A	19.03		A	17.20			17.03			72.22		A
	보통	17.03	11.36**	B	16.13	6.93*	B	17.24	0.46		17.05	0.41		67.45	6.97*	AB
	낮음	14.71		C	16.15		B	17.24			17.07			65.17		B
월수입	상	16.90			17.10			18.21		A	17.01			69.22		
	중	16.92	0.96		17.09	0.93		17.23	4.36*	AB	17.06	1.92		68.30	2.46	
	하	16.91			17.11			16.25		B	17.08			67.35		
가족 형태	대가족	16.89			18.96			17.92			18.64			72.41		
	핵가족	16.91	0.86		15.24	11.36**		16.54	4.92*		15.46	10.39**		64.15	9.86**	

\*p<.05 \*\*p<.01

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에 관계되는 변인 중 어머니 취업 유무를 제외한 어머니 교육수준, 아버지 교육수준, 어머니 취업 만족도, 월수입, 가족 형태 변인에 따라 각각 차이를 나타내는 하위변인은 달랐지만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점수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4.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환경 자극과의 관계 분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이 가정환경 자극과 어떤 관계를 갖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 두변인간의 상관 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

<표 6>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환경 자극간의 상관계수

(N=183)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
환경조직 및 안전성	.17*	.29**	.08	.15*	.27**
발달을 위한 자극	.21**	.26**	.17*	.30**	.34**
언어적 환경	.20**	.11*	.04	.18**	.19**
육구를 만족시켜 주는 정도 및 허용성	.14*	.12*	.18**	.32**	.30**
독립성의 육성	.19**	.23**	.24**	.33**	.36**
정서적 분위기	.26**	.36**	.16*	.26**	.23**
경험의 다양성	.43**	.39**	.21**	.29**	.41**
환경의 물리적 측면	.21**	.21**	.13*	.19**	.19**
놀이자료	.30**	.18**	.21**	.24**	.27**
HOME 총점	.45**	.41**	.26**	.39**	.43**

\*p<.05 \*\*p<.01

은 가정환경 자극과 대부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고 있었다. 즉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중 신체적 자아가 가정환경 자극중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 언어적 환경과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지 않았고, 나머지 변인들은 모두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가정환경 자극 총점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는데 인지적 자아는 HOME 총점과 .45, 사회적 자아는 .41, 일반적 자아는 .39, 신체적 자아는 .26의 상관을 나타냈다. 그리고 HOME 총점과 자아총점과는 .43의 상관을 나타내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인지적 자아는 가정환경 자극의 하위변인중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 정서적 분위기와 높은 상관을 나타냈고, 사회적 자아는 경험의 다양성, 정서적 분위기, 환경의 조직 및 안정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신체적 자아는 독립성의 육성, 경험의 다양성, 놀이자료와, 일반적 자아는 독립성의 육성, 발달을 위한 자극, 경험의 다양성과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가정환경자극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대부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 5.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분석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이들 변수간의 상관계수와 분산확대지수를 산출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변인 중 어머니 취업만족도는 대상 사례수가 적어 회귀분석에서 제외시키고 분석했는데 그결과는 다음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먼저 인지적 자아의 경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환경 자극이고 그 다음은 지역, 어머니 교육수준, 가족 형태, 어머니 취업 유무, 아버지 교육수준, 월수입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변인이 아동의 인지적 자아를 30%정도 설명해주고 있었다.

사회적 자아에는 가족형태, 지역, 가족환경자극, 아동출생순위와 어머니취업유무 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사회적 자아지각을 25%정도 설명했다.

<표 7>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관련변인의 영향력 분석

(N=183)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	
	B	$\beta$	B	$\beta$	B	$\beta$	B	$\beta$	B	$\beta$
지역	.37	.25**	.48	.27**	.21	.11*	.27	.15**	.23	.26**
아동성별	.11	.09	.25	.07	.21	.19**	.13	.03	.23	.11*
아동출생순위	.19	.05	.36	.11*	.31	.09	.31	.19**	.25	.09
어머니 교육수준	.42	.24**	.23	.09	.25	.06	.45	.29**	.54	.30**
아버지교육수준	.38	.13**	.12	.06	.12	.08	.31	.15**	.43	.26**
어머니 취업유무	.19	.19**	.24	.11*	.37	.08	.24	.19**	.14	.08
월수입	.07	.12*	.31	.08	.34	.12**	.30	.12*	.42	.23**
가족형태	.41	.21**	.45	.36**	.01	.08	.52	.23**	.48	.25**
가정환경자극	.27	.45**	.32	.26**	.34	.10*	.56	.31**	.73	.37**
상수	2.88		4.11		5.21		3.59		16.68	
R <sup>2</sup>	.30		.25		.21		.39		.52	
F	31.18**		27.29**		15.47**		43.21**		51.31**	

\*p<.05 \*\*p<.01

\*가변수(dummy variable) 준거집단 : 지역-도시, 성별-남아, 출생순위-첫째, 독자, 취업-유, 가족형태-대가족

신체적 자아에는 아동 성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월수입, 지역, 가정환경자극순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21%의 설명량을 나타냈다. 일반적 자아에는 아동 성별을 제외한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가정환경자극이고 그다음은 어머니 교육수준, 가족형태, 어머니취업유무와 아동출생순위, 아버지 교육수준과 지역, 월수입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모두 39%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한편, 자아총점에는 아동출생순위를 제외한 모든 변인이 영향을 미쳤고, 가정환경자극, 어머니교육수준, 지역과 아버지교육수준, 가족형태, 월수입, 아동성별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은 52%의 예언량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 변인들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비교적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가정환경자극과 지역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월수입, 가족형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도시와 농촌, 아동 및 가정관련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가정환경자극이 어떤 관계가 있고,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대한 여러 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본 연구의 피험자는 도시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동 183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본 연구의 결과 도시와 농촌에 따라서는 인지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에서 차이가 나타나 도시의 아동은 인지적 자아와 일반적 자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농촌의 아동은 신체적 자아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그리고 도시의 아동이 자아총점에서 농촌의 아동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같은 변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가 없어서 그 구체적인 결과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의 아동이 농촌지역의 아동에 비하여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다는 것을 보고한 조성연(1997)의 연구결과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이 도시의 아동이 농촌의 아동보다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갖는 것은 도시의 아동이 더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고, 풍부한 환경속에서 생활하므로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관련 변인중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와같은 결과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자기 자신을 지각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나타낸 우희정과 이숙(1994), Harter(1985)등의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가 여아보다 자기능력을 더 높게 지각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정에서 남아를 더 능력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서는 사회적 자아에서만 차이가 나타나 둘째아동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그다음은 독자, 첫째아동순으로 나타났다.

가정관련변인중 어머니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의 인지적자아, 일반적자아, 자아총점에서 더 자신의 능력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아버지 교육수준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적 자아능력을 더 높게 지각했다. 즉, 부모의 교육수준, 특히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차이가 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아동에게 더많은 성취를 강조하고 더 풍부한 환경을 제공해 주므로 아동이 자신의 능력을 더 높게 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 취업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머니 취업만족도에 따라서는 어머니의 취업만족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인지적 자아, 사회적 자아, 자아총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월수입에 따라서는 월수입이 많은 가정의 아동이 신체적 자아능력 지각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가족형태에 따라서는 대가족의 아동이 핵가족 아동

보다 사회적 자아, 신체적 자아, 일반적 자아, 자아 총점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가정에 관계되는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가족의 크기가 클수록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김순영, 1987; 손화희와 윤종희, 1999; 오순환, 1991; 조성연, 199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환경자극과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은 대부분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의 다양한 환경변인과 아동의 자기자신에 대한 능력지각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선행연구들(이남기, 박정희, 1995; 우희정, 이숙, 1994; 이주리, 유인진, 1991)과 같은 맥락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발달을 돕는 구체적 자극들은 아동의 환경을 더욱 풍부하게 해주고 발달을 촉진시키므로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긍정적으로 관계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아동의 자기능력지각에 대한 관련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가정환경자극과 지역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하위 변인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고, 월수입, 가족형태 등도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가정에서 부모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환경 자극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와 농촌의 지역차이는 여러 문화적인 차이를 나타내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다르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아동발달과 환경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은 지역의 차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초등학교 3학년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도시와 농촌, 아동 및 가정에 관련되는 여러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가정환경 자극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은 정적인 상관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여러 변인들은 아동의 자기 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한편 본 연구는 일부 도시와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했으므로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초등학교 저학년용 가정환경 자극 검사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 척도가 표준화 된 도구가 아니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의 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고, 아동의 자아형성을 위한 바람직한 환경 조성에 기초자료를 제공해 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를 통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즉, 본 연구에서 다룬 아동 및 가정에 관계되는 변인 뿐 아니라 다른 특성변인, 예를들면 부모의 성격, 학교성취, 친구관계 등에 따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으며, 가정환경 자극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다른 환경변인과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의 관계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능력 지각과 관련 변인간의 관계를 연령에 따라 비교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하며,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와 농촌 등의 지역의 차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공인숙(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경연(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감,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락서(1994). 어머니의 취업유무가 국민학교 아동의 자아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순영(1987). 아동기에 있어서의 자아개념과 창의성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박영애, 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과와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21-340.
- 손화희, 윤종희(1990).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연구. *아동학회지*, 11(1), 58-76.
- 어주경(1999).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 아동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오순환(1991). 어머니의 양육정도와 아동의 자아개념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우희정, 이숙(1994). 가정환경과 아동의 자기-효능감간의 인과모형 탐색. *아동학회지*, 15(1), 71-90.
- 윤현선(1983). 모의자아개념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자아개념과의 관계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남기, 박정희(1995). 아동이 지각적 심리과정적 가정환경 및 양육태도와 유능감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4), 265-278.
- 이미정(1988). 아버지의 자기존중감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기존중감과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9(1), 47-61.
- 이민영, 이희자(1995).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촉진적 의사소통과 아동의 자아존중감과와의 관계. *아동학회지*, 16(2), 113-124.
- 이영(1980). 3세이하 어린이의 가정환경과 발달수준과의 관계. *연세논총*, 17, 249-264.
- 이주리, 유안진(1991). 가정환경과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131-143.
- 이진화, 전경숙(1995). 연령, 성별, 사회계층적 지위에 따른 아동의 자기능력 지각과 부모의 책입지각. *대한가정학회지*, 33(6), 225-244.
- 장영애(1981). 가정환경 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84).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의 타당화 연구-국민학교 저학년용. *대한가정학회지*, 22(4), 173-182.
- 장영애(1987). 아동의 가정환경과 발달특성간의 인과모형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93).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 변인간의 관계 분석. *인천대학교 논문집*, 제18권, 36-61.
- 장영애(1994). 아동의 언어능력과 환경 변인간의 관계 분석 II: 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2(3), 171-184.
-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 장혜정(1993). 가정환경 변인이 국민학교 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경숙(1992). 부모-아동간 신념의 일치도와 아동의 학업 성취도 및 자기 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조건형(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자아개념과의 상관연구.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선영(1997).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45-58.
- 홍성윤(1994). 아동의 자아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변인에 관한 연구. *순천향대학교 지역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Anastasi, A. (1982). *Psychological testing*.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Bandura, A. (1977) *Social learning theory*. Englewood Clifts, N.Y.: Prentice Hall.
- Caldwell, B.M. & Bradley, R.M. (1979).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Arkansas, AR.
- Halpin, G., Halpin, G., & Whiddon, T. (1980). The relationship of perceived parental behaviors to locus of control and self-esteem among American Indian and white children. *J. of*

- Social Psychology* III, 189-195.
- Harter, S. (1982). The perceived competence scale for children. *Child Development*, 53, 87-97.
- Harter, S. (1985). *Manual for self perception profile for children*. University of Denver.
- Mussen, P.M., Conger, T.T., & Kagan, J. (1979). *Child Development & Personality*. N.Y.: Harper & Row.
- Parsons, J.E., Ruble, D.N., Hodgers, K.L., & Small, A.W. (1976). Cognitive developmental factors in emerging sex differences in achievement related expectancie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32, 47-62.
- Patterson, C.J., Kupersmidt, J.B., & Gviesler, P.C. (1990). Children's perceptions of self and of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s status. *Child Development*, 61, 1335-1349.
- Taub, M. (1974). Self concepts of parent and child.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9, 136-145.
- Tower, R.B. (1981). Parent's self-concepts and preschool children's behaviors.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710-718.
- Wu, Yi-Ju & Smith, D.E. (1997). Self-esteem of Taiwanese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7(1), 1-19.